

트럼프 시대, 중국 경제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지 만 수 선임연구위원

jmansoo@kif.re.kr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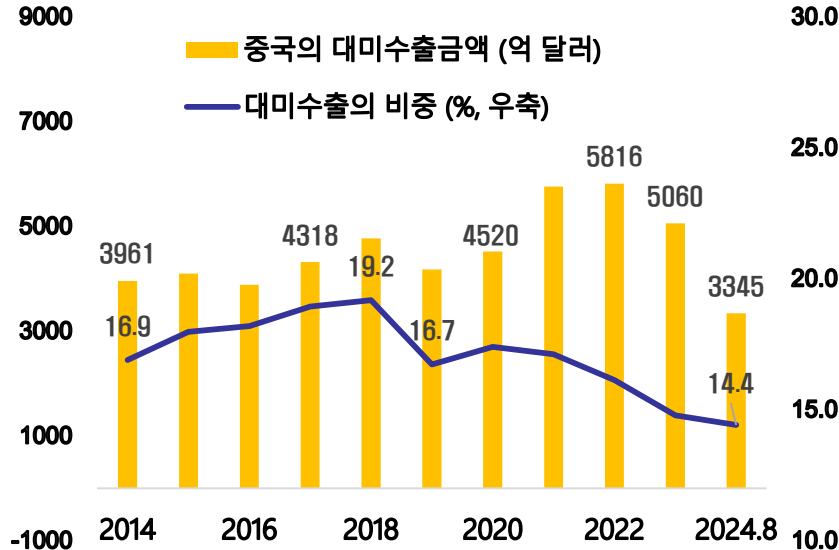
1. **트럼프 시대 :decoupling과 detouring**
 2. **Peak China, 성장둔화의 원인**
 3. **중국의 제조업 (제조→무역→물류)**
 4. **전망과 대응**
- (참고)**

1. 트럼프 시대: decoupling 과 detouring

◆ 관세 60% 공약 : de-risking → decoup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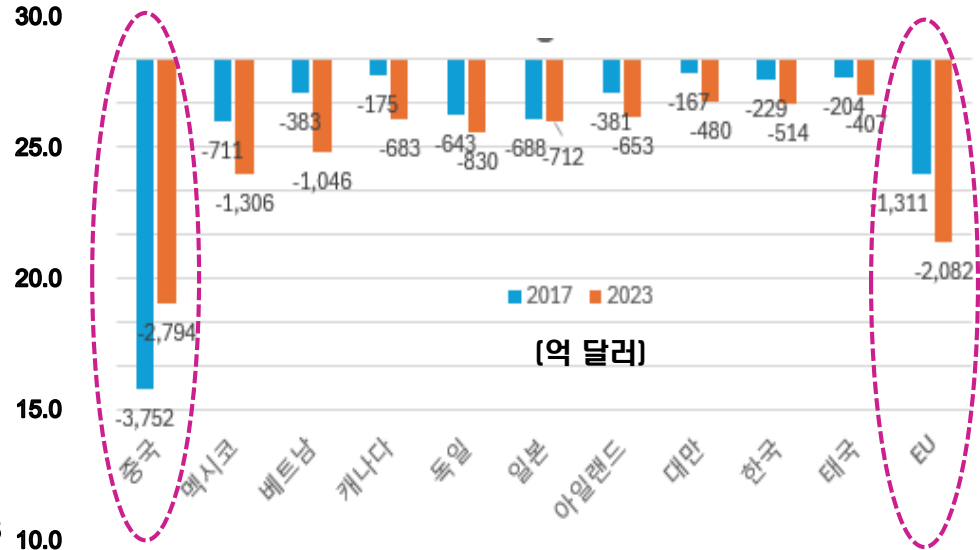
- 경제안보적 위협 → 경제적 위협으로 관점 변화 (무역수지 흑자국이 바로 적국)
- Biden + EU : 전략 기술 보호 + 전략 산업 공급망 의존 방지 = 반도체와 배터리
- 트럼프 : 무역수지 적자 자체가 문제 (중국 + EU)

중국의 대미수출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1. 트럼프 시대: decoupling 과 detouring



◆ 중국 :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우회(detour) 추구

- 중국은 해외투자 등을 통해 우회 수출이 가능
-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음.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투자



자료: 中国加大对越南投资：机遇与挑战

멕시코에 대한 중국의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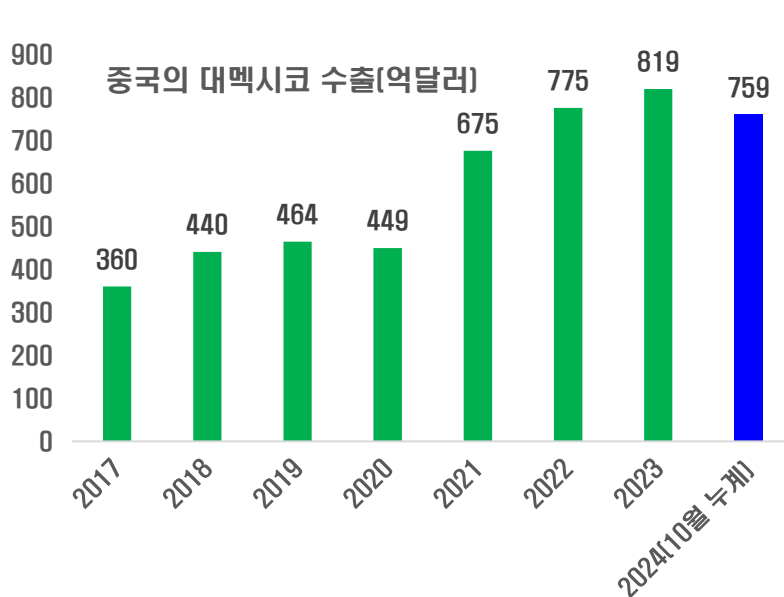
자료: 荣鼎报告分析中国对墨西哥的投资情况

1. 트럼프 시대: decoupling 과 detouring

◆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디커플링을 우회할 경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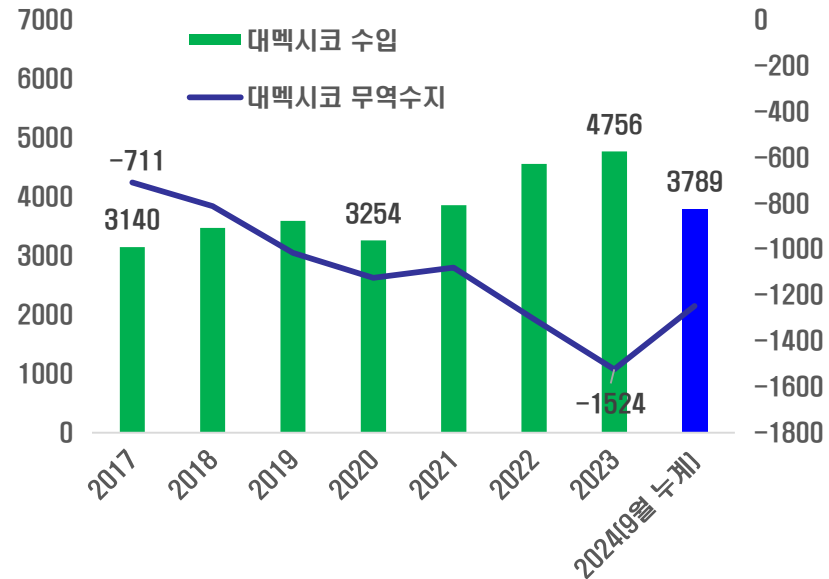
- 중국은 해외투자 등을 통해 우회 수출이 가능
- 중국의 베트남과 멕시코 등에 대한 수출이 늘고, 다시 이들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

중국과 멕시코



자료: 한국무역협회

미국과 멕시코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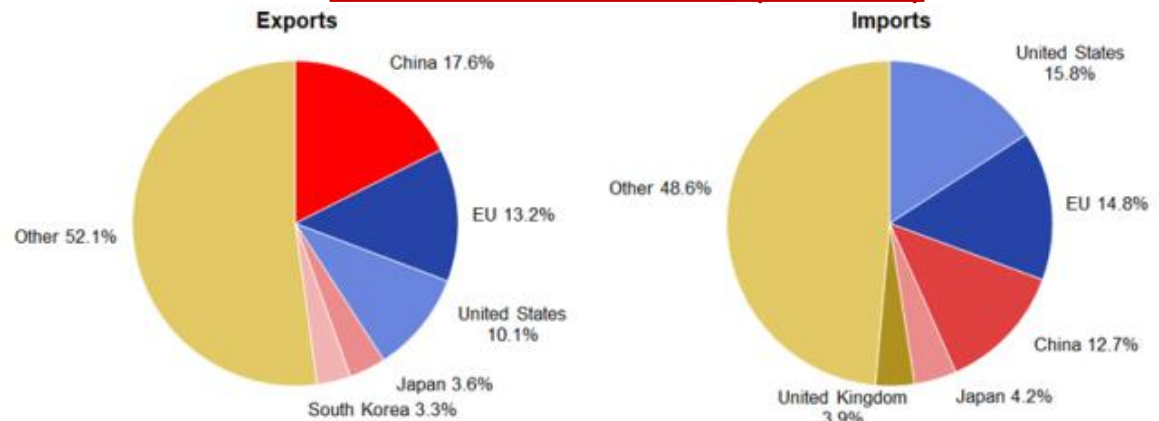
1. 트럼프 시대: decoupling 과 detouring



◆ 관세의 선후, 우회차단의 강도, 보복의 악순환

- 보편관세(~20%)와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60%~) 중 어느 것이 먼저?
 - 보편관세 : 법률적 절차에 시간 소요, 미국 소비자 부담 연간 780억 증가 (Reuter, 24.11.5)
 - 대중관세 : 고율 관세 및 보복 우려 때문에 미국내 이해집단이 강력 반발
 -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만들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 반면, 미국은 1차 무역협상(2020.1.14)의 위반 등을 이유로 우선 부과 이후 협상을 진행할 전망
- 중국의 우회수출에 대한 차단을 어떤 강도로 할 것인가?
 - 한국, 베트남, 멕시코 등이 대표적 수혜자 그룹,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과정(원산지 규정 등)
- 각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인가?
 - 중국은 상응대응을 해왔음.
 - EU의 대응 여부가 중요함.
 - EU가 대응할 경우 세계 무역의 1/20이 영향 (보호주의 악순환)

세계 수출-수입 비중(2022년)



Source: Eurostat (online data code: ext_it_introeu27_2020) and UNCTAD

1. 트럼프 시대: decoupling 과 detouring



◆ 지정학적 우회 : 대중 동맹 와해 시도

- 미국에 대해서는 수동적/후행적 대응, 제3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선행적 대응
- 명분 :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기존 글로벌 가치를 옹호 (미국이 떠난 자리)

대상	전략
(미국의) 동맹국	[EU] 관세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 개별국가와 양자 경험 논의 확대 [일본] CPTPP 가입 협상 등을 계기로 활용, 일본 정국 안정시 정상회담 추진 [호주] 2022년 정권교체 후 형성된 대화 활용, 공급망/에너지 협력 확대 📅 1월 15일 트럼프 취임 이전에 EU와 대화 테이블 가동 시도
글로벌 사우스	[인도] 최근 정상회담(10월) 및 국경문제 진전 계기 경험강화 및 QUAD 형해화 *QUAD : 제안은 아베총리(2017), 격상은 바이든 대통령(2021) [ASEAN] 미국 IPEF 탈퇴 계기, 인프라/공급망/에너지 중심 경험 가속화 [BRICs, 일대일로] 안정화 및 재평가
한국	관심의 초점은 2025년 APEC 시주석 참석 여건 조성 (관료주의적 접근) * 중국은 2026년 APEC 개최국 * 반중감정 무마, 정상간 대화 분위기/의제 발굴 (비자면제 등) * 2025 APEC :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 * 2024 G20 정상회의 (브라질) : Global Challenge Against Hunger and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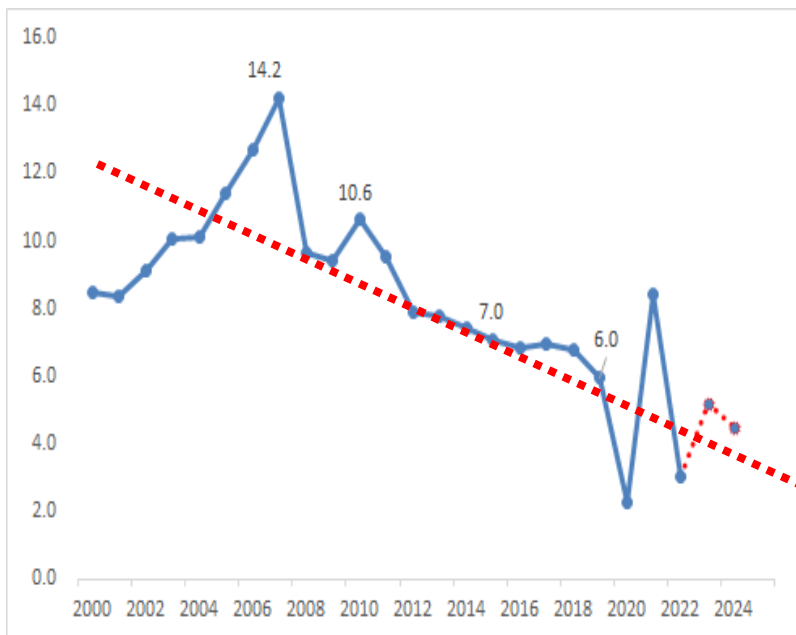
2. Peak China, 성장둔화의 원인



◆ 장기적 성장둔화는 불가피, 그 경제적, 역사적, 지정학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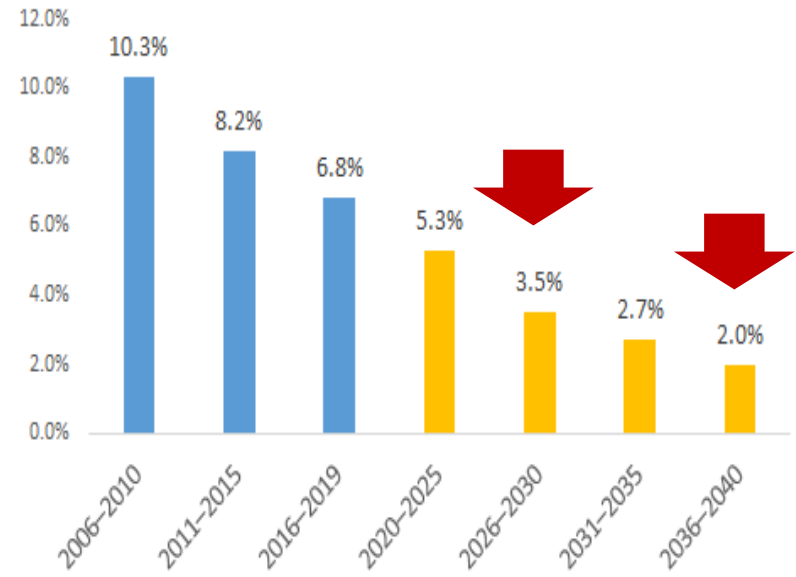
- [경제-정치적] 사회안정 및 2035년까지의 장기 계획 달성 여부(4.7%)
- [역사적] 성장률이 세계 장기 평균(2000~2019년 3.8%)에 미달, **중국의 부상 Peak**
- [지정학적] 미국의 장기 평균(1.95%) 수준으로 수렴, **미국에 대한 추격/추월 peak**

성장률 추세



자료 : CEIC

잠재성장률 변화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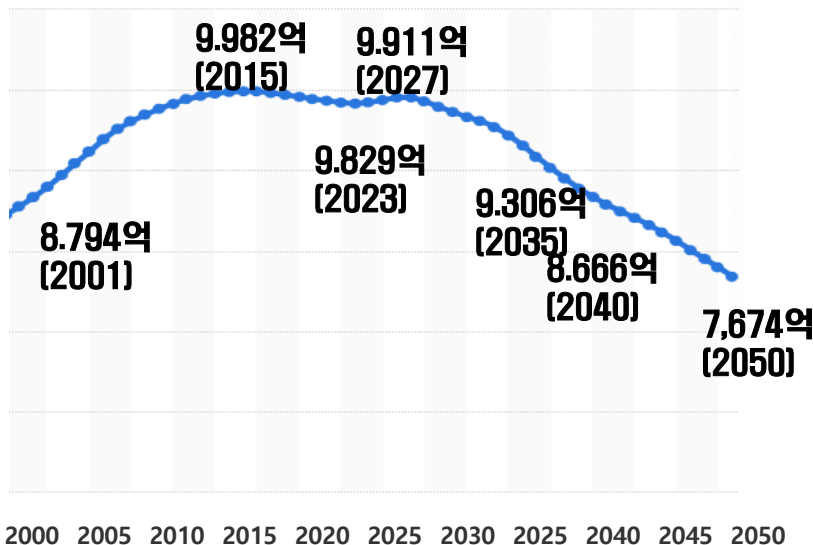
자료 : ADB

2. Peak China, 성장둔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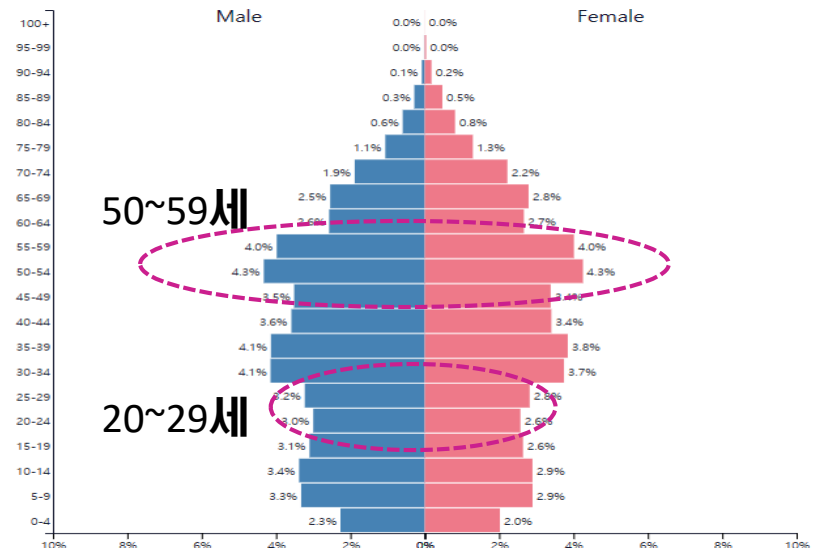
◆ 원인 1.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인력 수급 미스매칭

- 빠른 고령화와 함께 인력공급의 미스매치가 성장을 제약
 -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2023년 1,662만 은퇴)
 - 대졸자(2019~2023년): 834 → 874 → 909 → 1076 → 1158 만명 (2022년 출생자 956만)
 - 대학원 진학 34.2 → 40.8%, 21~22년간

생산가능인구



중국 인구 피라미드(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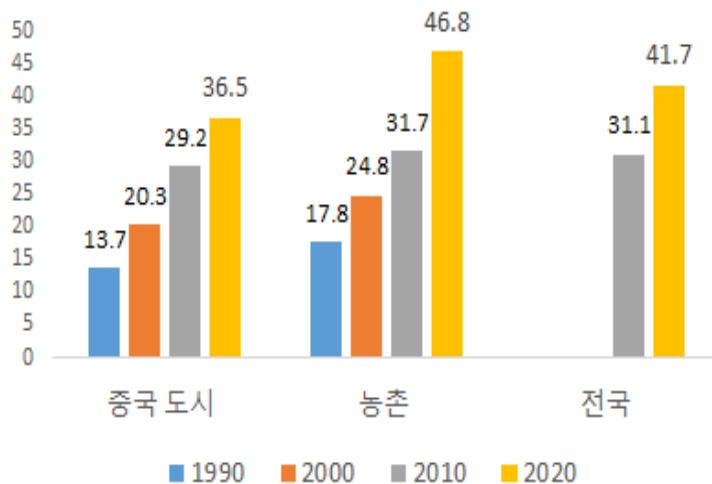
2. Peak China, 성장둔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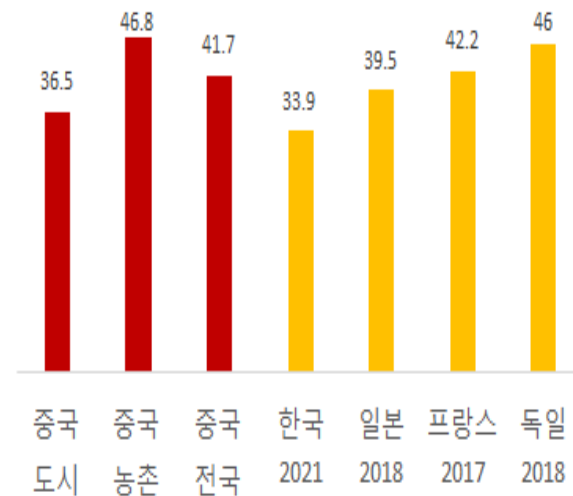
◆ 원인 2 : 탈(脫) 부동산 전환

- 부동산 세대에 형성된 고저축-고투자 성장모델 종료
- 1998년 주택사유화 이후 한 세대 경과, 30년 간의 주택건설로 공급총량이 충분한 상태
- 중국의 투자의존형 고도성장의 중요한 축이 부동산 투자

일인당 주택 면적(평방미터)



일인당 주거면적(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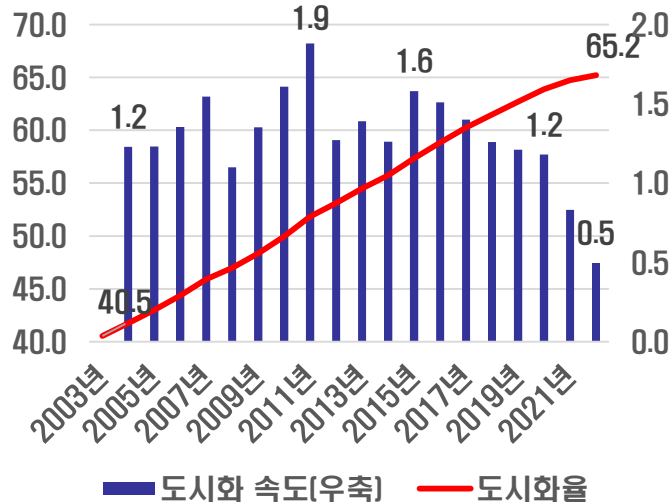


2. Peak China, 성장둔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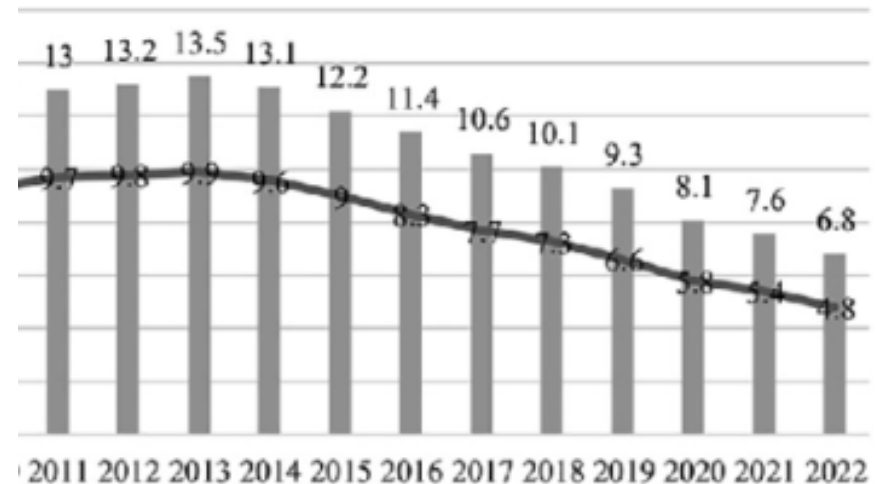
◆ 원인 2 : 탈(脫) 부동산 전환

- 수요도 정점 : 주택 과잉, 인구구조 변화, 도시화 둔화 → 정책전환 → 성장둔화
- 도시화 속도 둔화, 결혼 급감 등 → 향후 신규주택 수요보다 리노베이션 및 재건축
- 다주택자 비중 40% → 주택투기에 대한 시진핑의 부정적 인식
- 전국적 등기 시스템 구축(2023년), 부동산세 및 상속세 도입 가능성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도시화 속도



결혼건수 (백만 쌍)



❖ 신축주택 수요 전망(억 제곱미터, 연간) : 4.1(~25년) → 3.2(~30년) → 2.3(~35년) 金融界 2022.10.24

2. Peak China, 성장둔화의 원인



◆ 원인 3. : 권위주의적 성격 강화에 대응하는 경제주체들의 태업

- 정치사회적 통제와 비시장적 비전 추구 → 경제주체들이 일종의 태업을 감행
 - 투표를 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투자(경제활동)가 정치적 의사표시 임.
- 민간기업, 지방관료, 청년, 중산층
 - 민간기업 : 국유중시, 반자본 담론, 기업내 당활동
 - 투자를 안 함.
 - 지방관료 : KPI 혼란 (GDP→ 반부패/빈곤/탄소/방역...)
 - ex 2022년 전력난 (“당 중앙의 뜻이 아니었다”)
 - 뭘 해야 승진할 지를 모름. 복지부동
 - 청년 : 경쟁/과로, 소득격차, 부모자산
 - 취직을 안 함.
 - 중산층 : 부동산 투기 비난, 근검 절약 강조
 - 집도 주식도 안 사고 소비도 안 함. 해외여행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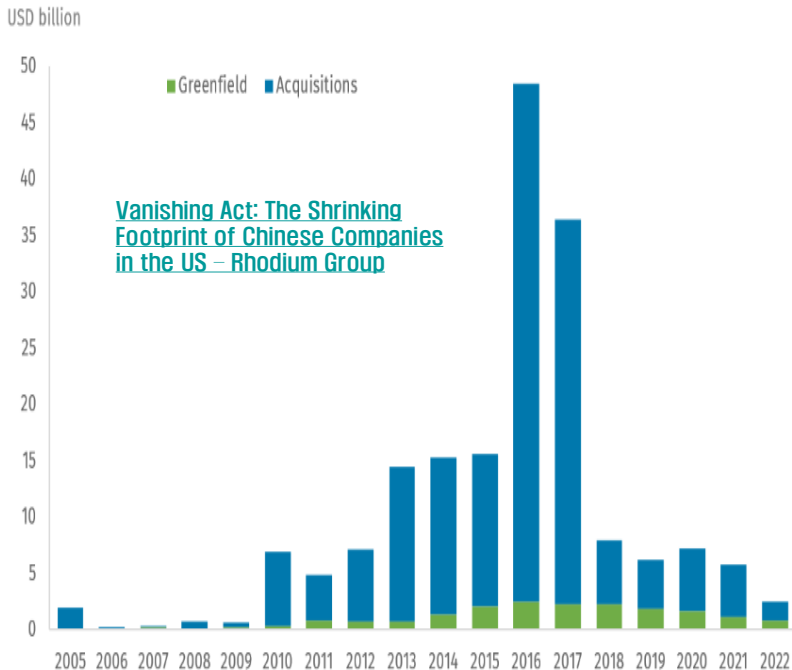
內卷 躺平 外潤

2. Peak China, 성장둔화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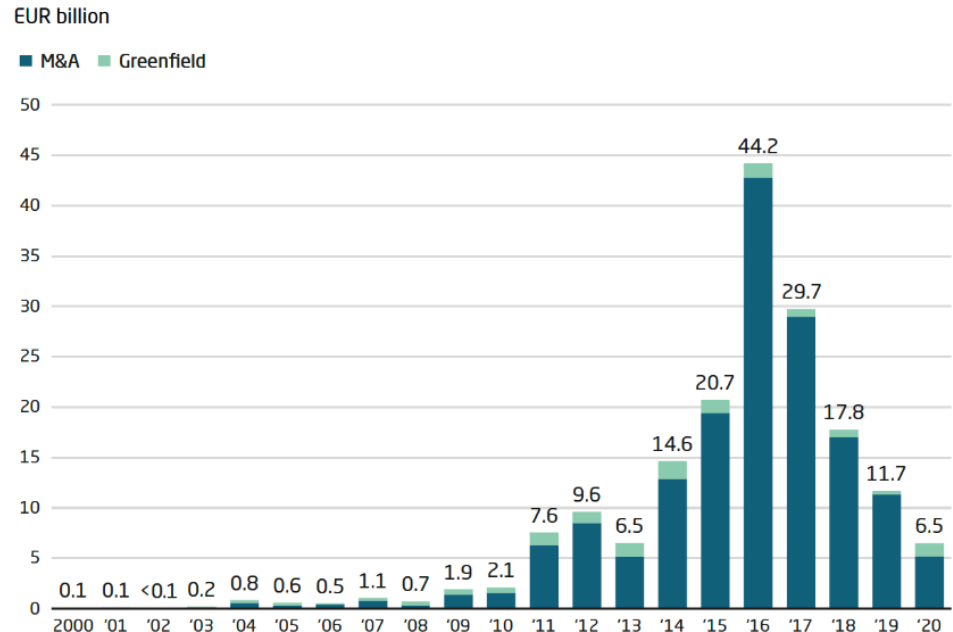
◆ 원인 4. : 미국과 유럽의 중국견제

- 글로벌 가치사슬에 접근하는 비용이 증가, 외부 혁신 동력에 대한 접근이 차단
 - 미국의 관세부과,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투자심사제도 등
 - 수요 측 견제는 우회할 수 있으나, 공급 측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추가됨.

중국의 미국에 대한 M&A



중국의 EU 및 영국에 대한 F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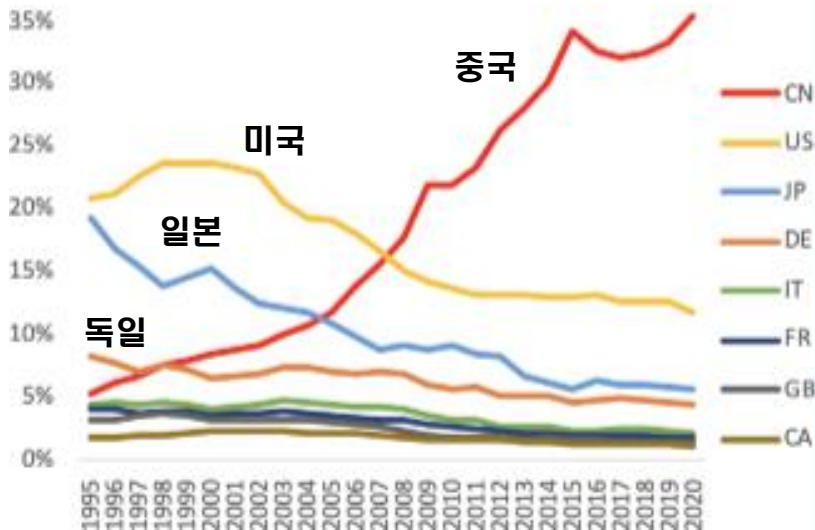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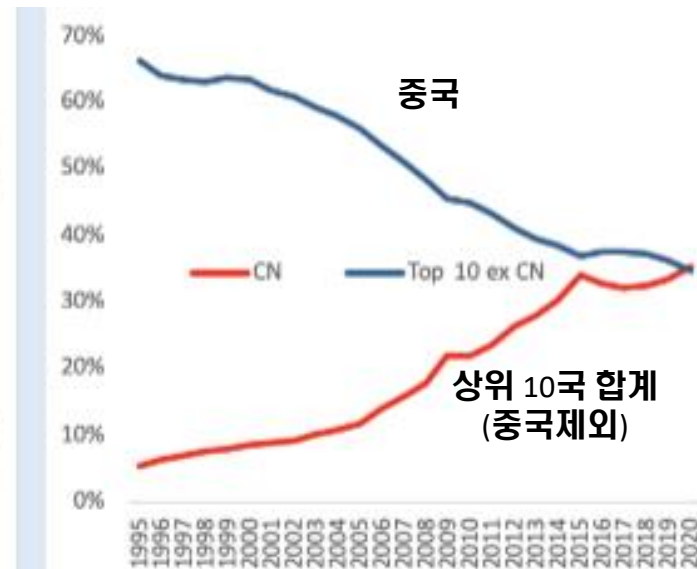
◆ 중국이 세계 제조업을 장악 → 그 장악이 오래 갈 것인가?

- 중국은 세계 제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것이 중국이 누리는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의 원천이자 지정학적 갈등의 근저에 깔린 원인임.

세계 제조업 비중(G7과 중국)



세계 제조업 비중(중국과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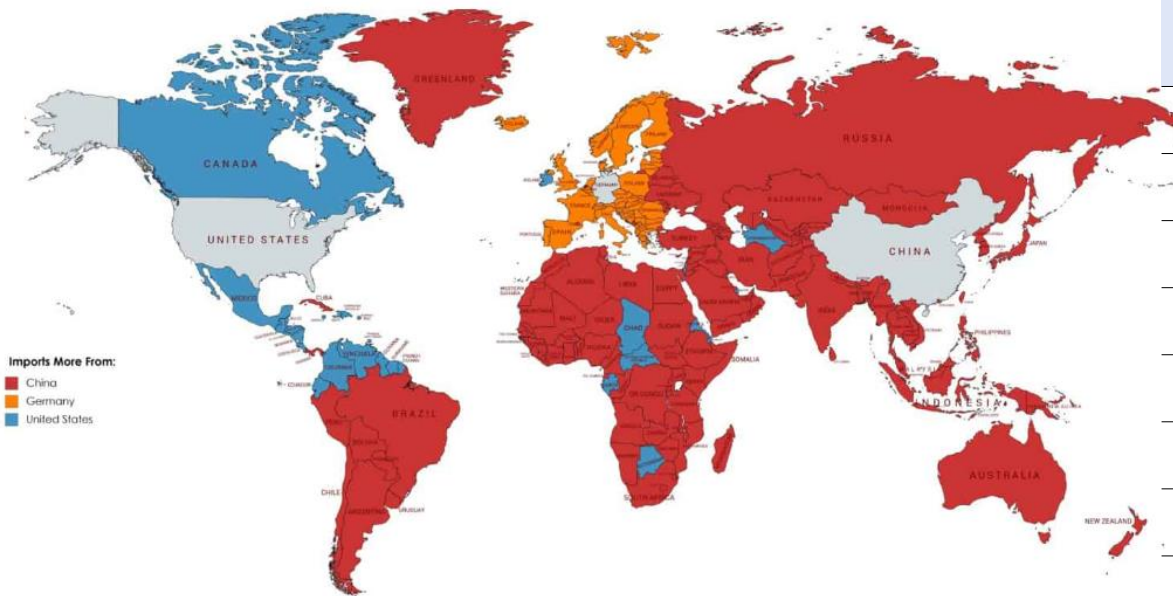
자료 : CEPR, 2024.1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세계 1위의 제조업 + 무역국 = 단절 비용이 막대함.

- 지정학적 프리미엄 : 세계화 시대에는 금융 → 지정학 시대에는 제조업
- UN 산업분류(ISIC) 41개 공업 대분류, 666개 소분류까지 전업종 보유를 강조
- 이른바 global south에 대한 영향력의 기초를 제공

세계 각국의 1위 교역 파트너 (IMF, 2020 기준)



제조업 순위 (2022년)

국가	금액 (조 달러)	비중 (%)
중국	4.98	30.1
미국	2.50	15.5
(EU)	2.51	15.2
일본	1.03	6.4
독일	0.75	4.5
인도	0.46	2.8
한국	0.4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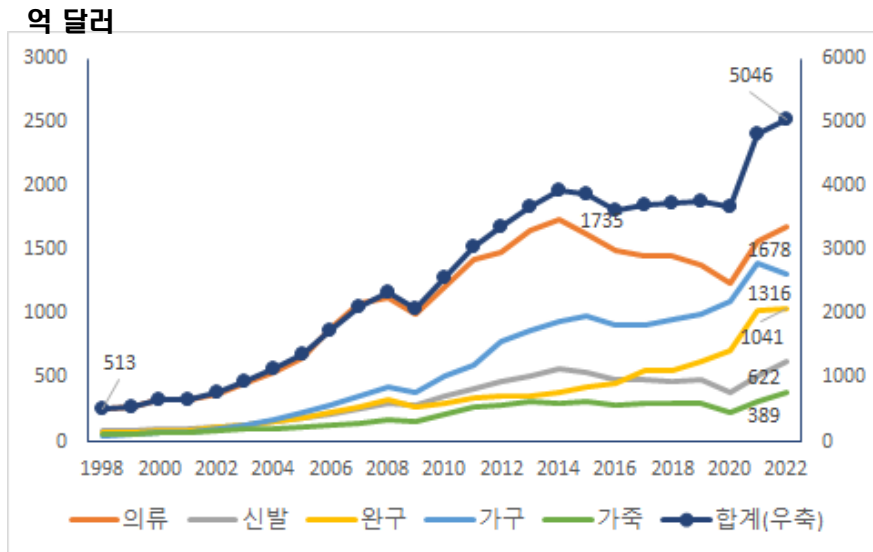
* 미국, 일본은 2021년 기준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중국은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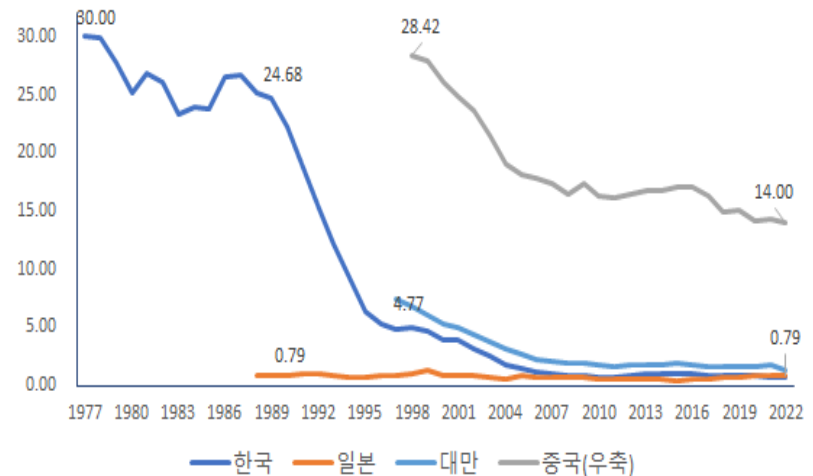
- 이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선발 수출형 제조업국의 역사적 경험과는 다른 양상임.

중국 노동집약 산업의 수출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경험 [수출 중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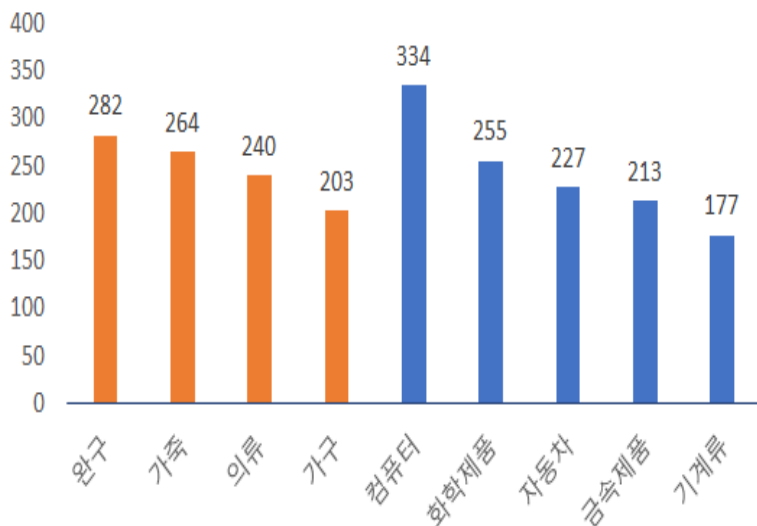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Comtrade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중국은 노동집약적 업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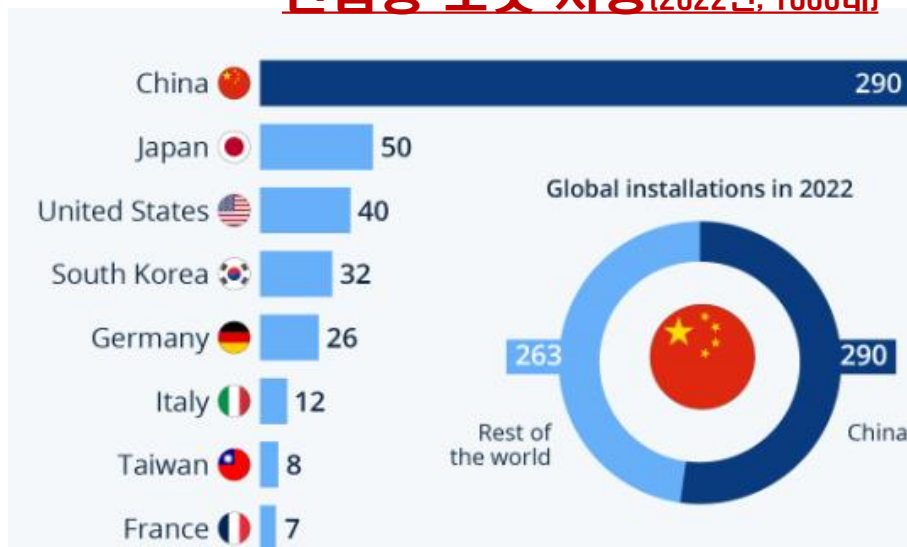
- 고부가가치-자본집약적 업종으로의 업종간 고도화 + 노동집약적 업종의 업종내 고도화가 진행
 - [참고] 2022년 전세계 산업로봇 도입(55만대) 중 중국이 29만대(52.4%)
 - [가설] 자동화와 AI 등의 발전 → 산업화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비교우위 변화를 자체 자본과 기술 투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국가가 등장

일인당 고정자산(2021년, 2011년=100)



자료 : 국가통계국

산업용 로봇 사용(2022년, 1000대)



자료 : Statista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지정학 시대가 오하려 Post China 생산기지 형성을 억제

-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
 - 공급망 안정화 : 기업차원에서는 생산기지 분산 → 지역차원에서는 기존 생산기지로 집중
 - 보호무역이 확대되면 새로운 수출주도형 성장국가에게 불리
 - 현재 어떤 나라도 중국을 **아래로부터** 위협하고 있지 않음.

세계화 시대

지정학 시대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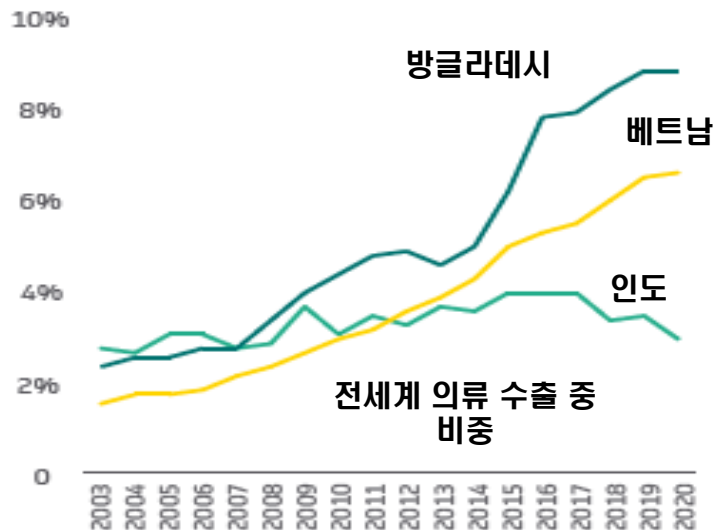


◆ [참고] 인도와 아프리카의 제조업

- 원래 제조업 선발국을 위협하는 것은 후발국의 빠른 추격임 (일본-한국-중국).
- 아직까지 중국을 아래서부터 추격/위협하는 후발 개도국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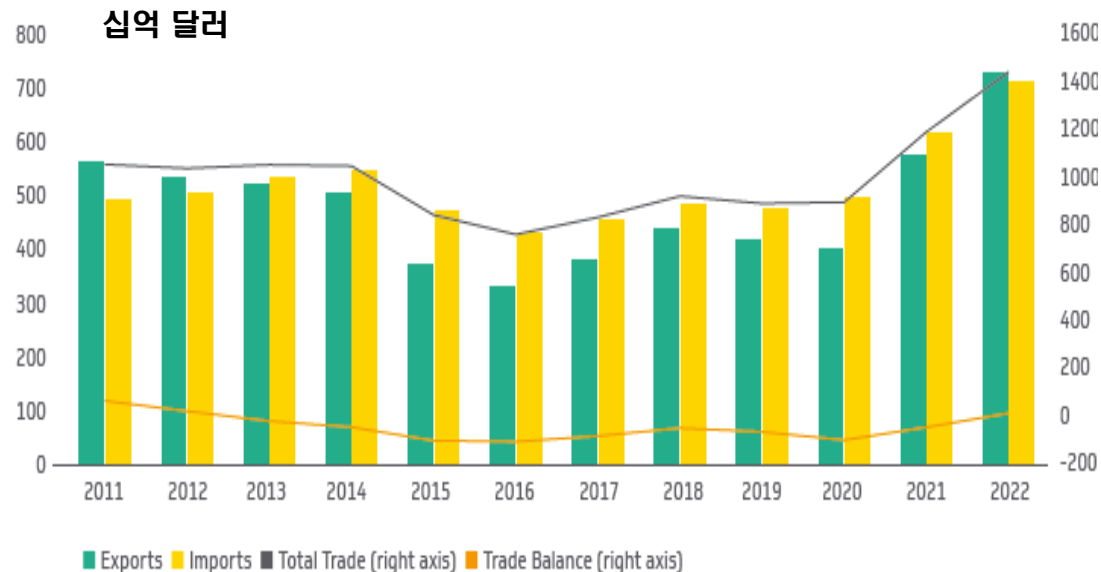
- 중국의 제조업을 아래서부터 위협할 수 있는 국가가 가시화되지 않음.

인도의 의류 수출



자료 : AFEXIM

아프리카 상품 무역(2011~22)



자료 : AFEXIM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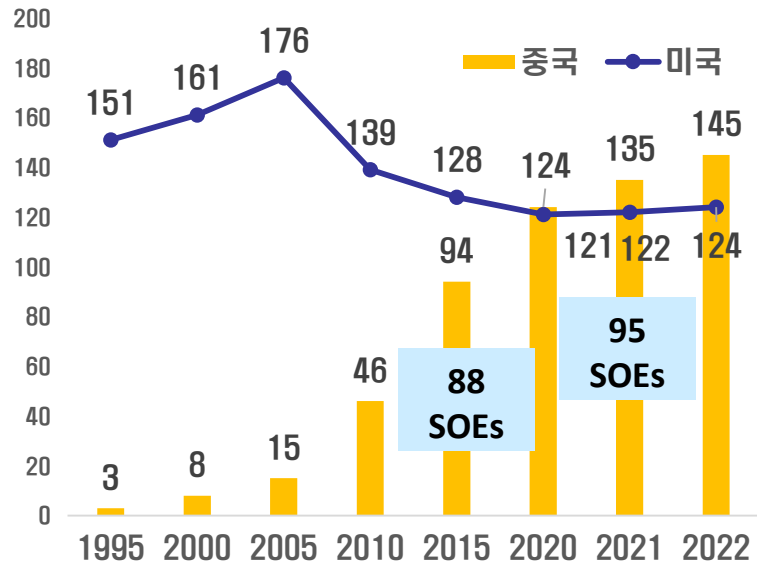
◆ 주력산업에서는 국유기업과 정부주도적 경제체제의 지원

- 중국 국유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5인 상황.
- 이들은 사업다각화와 글로벌 M&A를 통해 첨단 기업으로 변화하여 글로벌 경쟁에 참여
- 직접적 정부지원(보조금, 산업정책) + 경제체제의 간접적 지원 효과 + 선단식 시너지

포춘 500대 기업

	2023년
미국	136
일본	41
독일	30
프랑스	24
영국	15
한국	18
중국	135

중국기업의 성장과 국유기업



자료: fortune,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각 사 홈페이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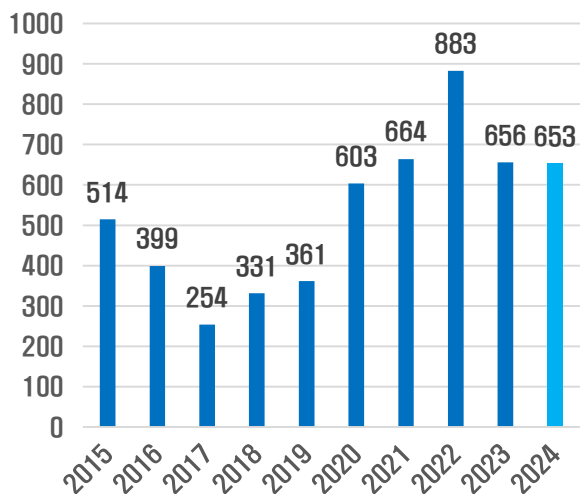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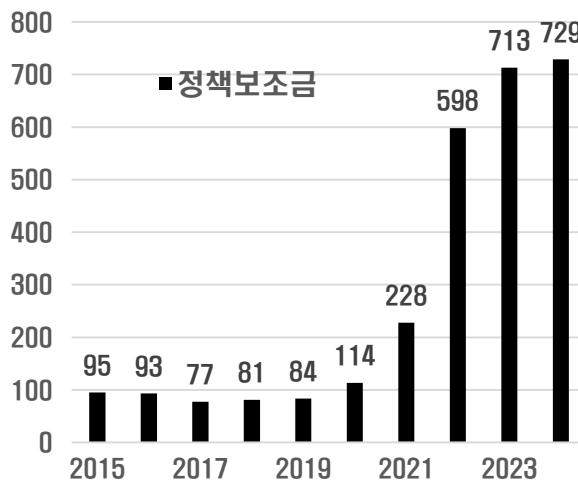
- 중국 국유기업은 시진핑 시기 들어 강화되고 있는 국가주도적 경제체제(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임.

중양 국유기업에 대한 자본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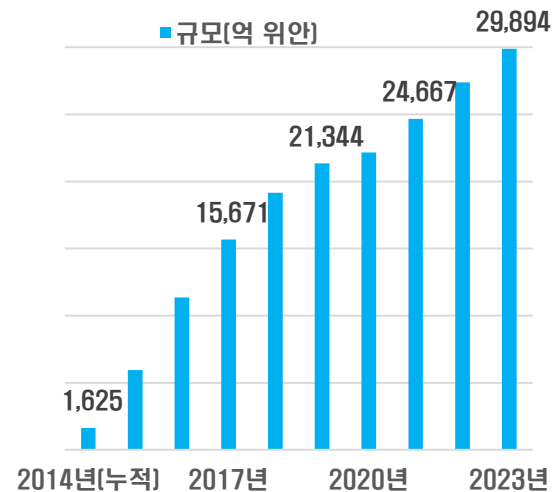
자료: 중국 재정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억 위안)



자료: 중국 재정부

국가산업투자기금 누계



자료: 投中研究院, 2023年政府引导基金专题研究报告,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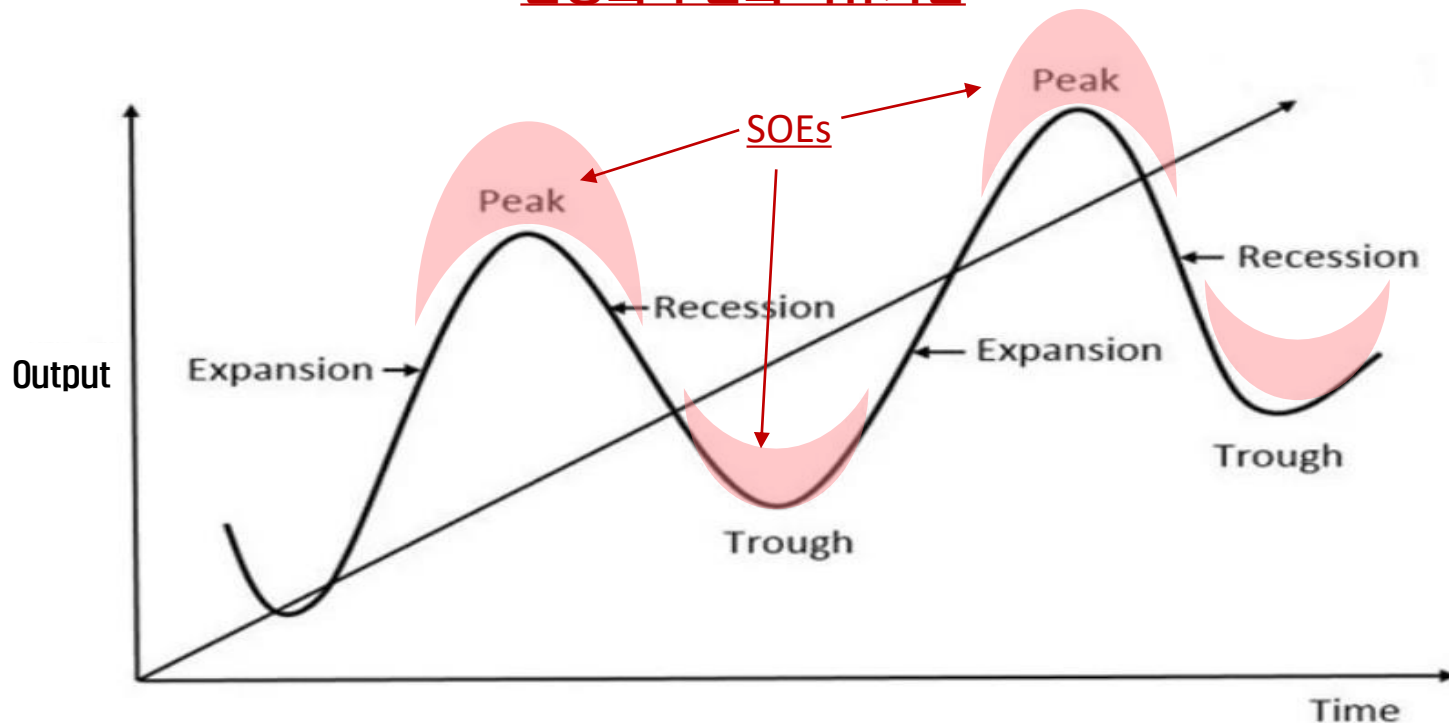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국유기업의 동태적 불공정성 : 이대로 20년이 지나면...

- 업종별 경기순환 과정에서 동태적으로 시장을 장악 [호황기 가속성장, 불황기 생존유지]
 - 국유기업 구조의 특수성 : 불황기 국유기업 파산 → 다른 국유기업이 인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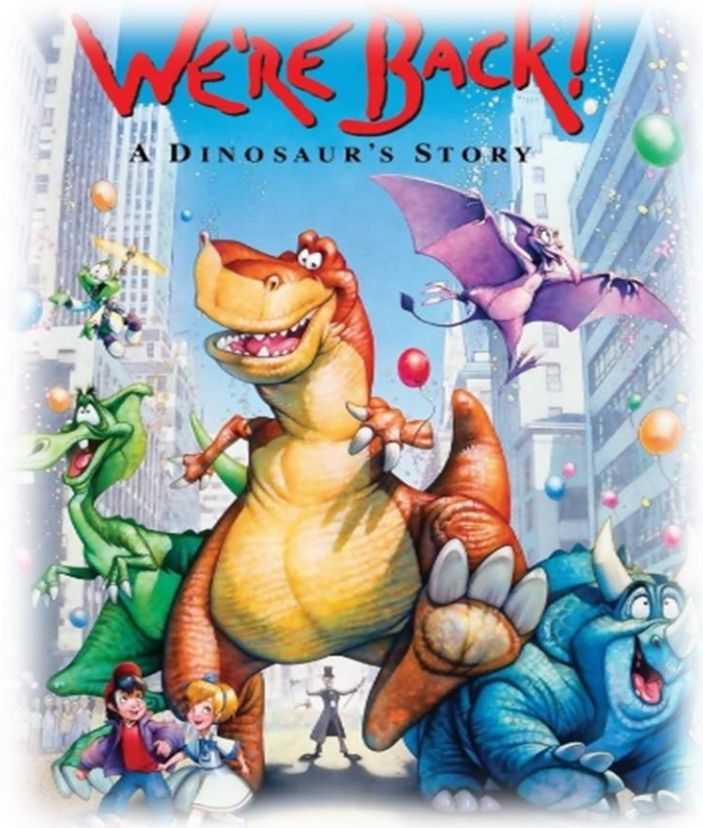
업황의 부침과 국유기업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중국 국유기업의 이슈 : 비효율성 → 불공정성

- 사멸하는 공룡 → 저가거리의 공룡
- 국내의 독점자 → 글로벌 경쟁자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첨단산업과 신산업 : 봉쇄 속에 혁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 R&D, 창업, 금융, 시장이 결합하는 실리콘밸리 형 국내 혁신 생태계(투자...회사) 존재
- 지역 플랫폼(선전과 중관촌) + 기업 플랫폼(BAT 등의 CVC) 등 혁신의 성과를 비싸게 사 줄 고객이 존재

넓은 창업 기반

활발한
창업 생태계

높은 성장성, 기대수익

上证: 13.1 深证: 25.65 2020-05-29
中小板: 28.32 创业板: 45.94 (数据来源: 上交所 深交所)



Venture capital



Baidu 百度

阿里巴巴
Alibaba.com



- 세계 2위 R&D 투자
- 세계 특허의 40%

하루에
창업 2.2만개

VC 펀딩 세계 2위
미국 : 3,280억 달러
중국 : 2,200억 달러
한국 : 210억 달러
[2020년]

IPO 억달러 PwC
779(2019)
1,205(2020)
1,300(2021)
995(2022)
한국 3.9조원 [2023]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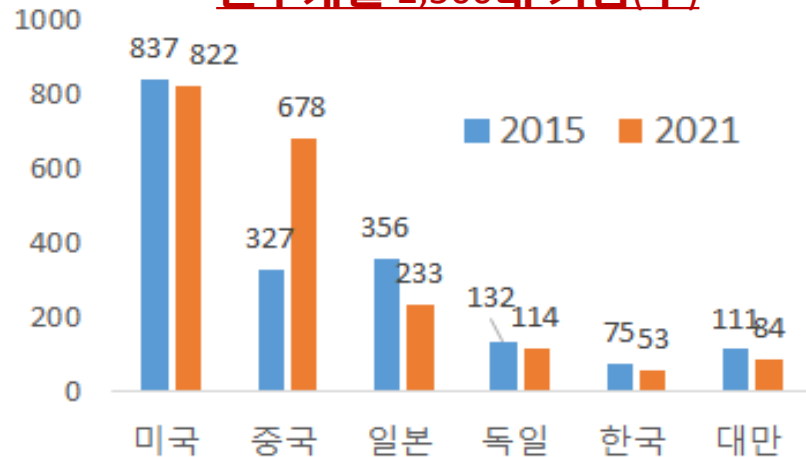
◆ 중국은 권위주의적, 국가주도적 혁신이 가능함을 실증한 나라

핵심 기술 평가(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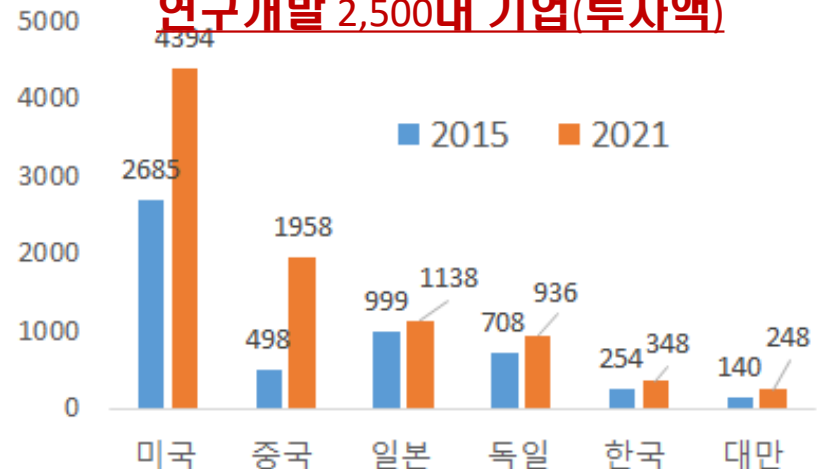
Technology	Lead country	Technology monopoly risk
신소재 제조		
1. Nanoscale materials and manufacturing	China	high
2. Coatings	China	high
3. Smart materials	China	medium
4.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China	medium
5. Novel metamaterials	China	medium
6. High-specification machine tools	China	medium
7. Advanced explosives and pyrotechnic materials	China	medium
8. Critical minerals extraction and processing	China	low
9. Advanced magnets and superconductors	China	low
10. Advanced protection	China	low
11. Continuous flow chemical synthesis	China	low
12. Additive manufacturing (incl. 3D printing)	China	low
AI, 컴퓨터, 통신		
13. Advanced radiofrequency communications (incl. 5G and 6G)	China	high
14. Advanced optical communications	China	medium
15. Artificial intelligence (AI) algorithms and hardware accelerators	China	medium
16. Distributed ledgers	China	medium
17. Advanced data analytics	China	medium
18. Machine learning (incl. neural networks and deep learning)	China	low
19. Protective cybersecurity technologies	China	low
20. High performance computing	USA	low
21. Advanced integrated circuit design and fabrication	USA	low
22.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cl. speech and text recognition and analysis)	USA	low
에너지 환경		
23. Hydrogen and ammonia for power	China	high
24. Supercapacitors	China	high
25. Electric batteries	China	high
26. Photovoltaics	China	medium
27. Nuclear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China	medium
28. Directed energy technologies	China	medium
29. Biofuels	China	low
30. Nuclear energy	China	low
양자 컴퓨팅		
31. Quantum computing	USA	medium
32. Post-quantum cryptography	China	low
33. Quantum communications (incl. quantum key distribution)	China	low
34. Quantum sensors	China	low
바이오		
35. Synthetic biology	China	high
36. Biologics manufacturing	China	medium
37. Vaccines and medical countermeasures	USA	medium
우주, 국방, 로봇		
38. Photonic sensors	China	high
Defence, space, robotics and transportation		
39. Advanced aircraft engines (incl. hypersonics)	China	medium
40. Drones, swarms, autonomous collaboration technologies	China	medium
41. Small satellites	USA	low
42. Autonomous systems operation technology	China	low
43. Advanced robotics	China	low
44. Space launch systems	USA	low

자료 : ASPI's Critical technology Tracker 2023

연구개발 2,500대 기업(수)



연구개발 2,500대 기업(투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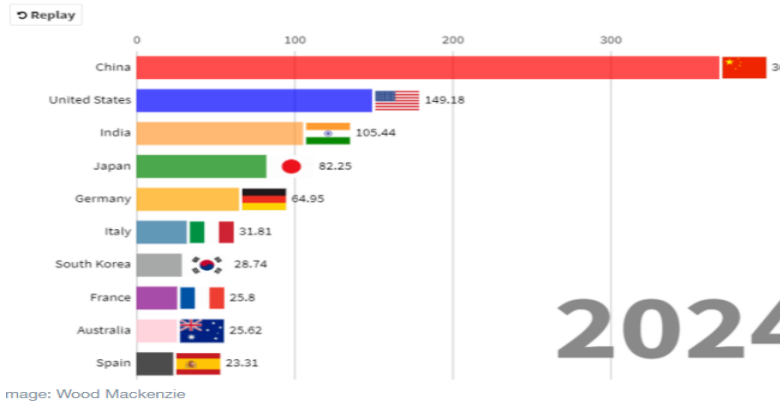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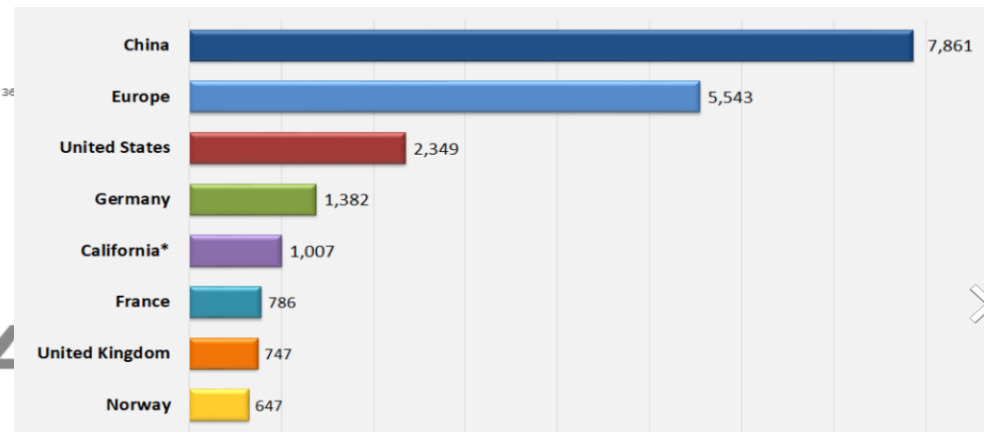
◆ 탈탄소 전환 : 중국이 관련 산업의 최대 공급자이자 수요자

태양광패널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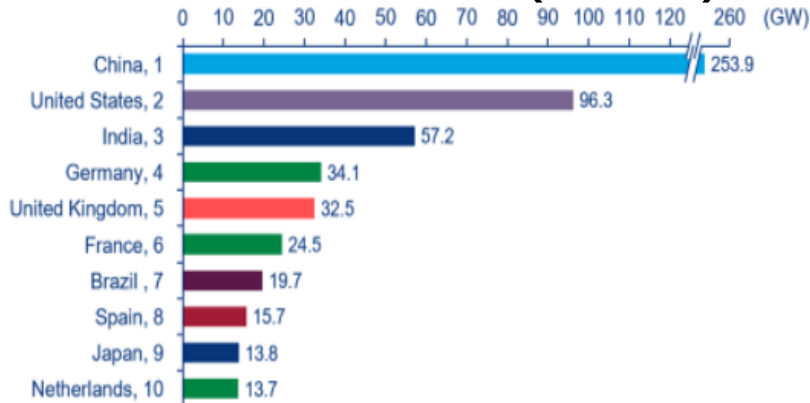
Cumulative annual PV installations by country, 2001 - 2024E (GW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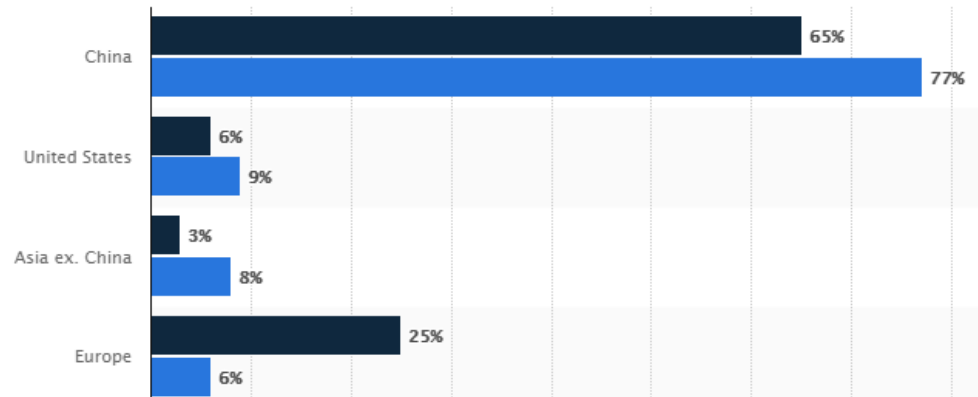
전기차(승용차)판매 (2021)



풍력 터빈 신규수요(~2029)



배터리 (2020~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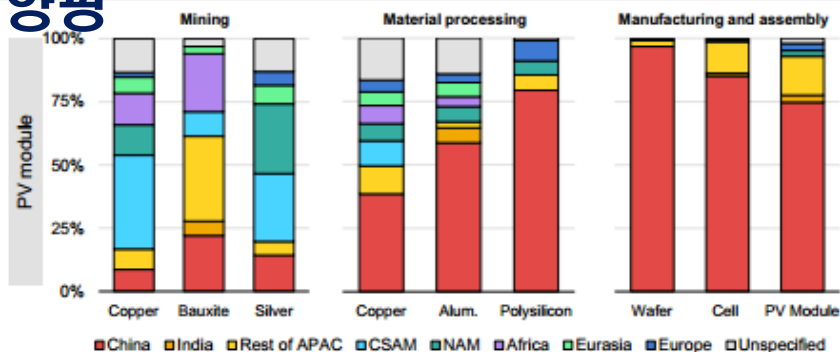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탈탄소 전환 : 이미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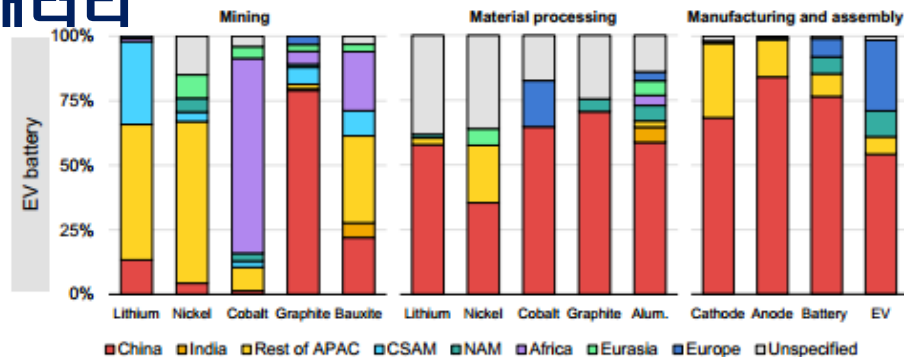
- 동 산업은 중국이 가치사슬 전반 뿐 아니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Figure 8 Geographic concentration of selected clean energy technologies by supply chain stage and country/region, 2021

태양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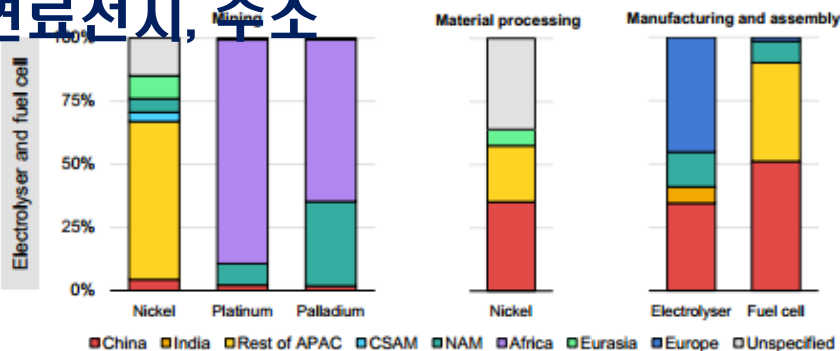


배터리



IEA. All rights reserved.

연료전지, 수소



전기차 판매(2022)

자료: IEA, 2022

자료: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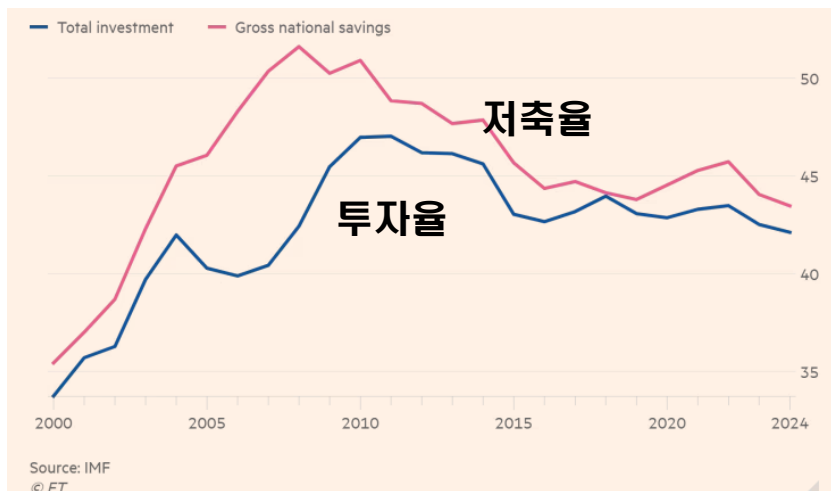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수요측] 탈 부동산 전환의 장기적 효과 : 내수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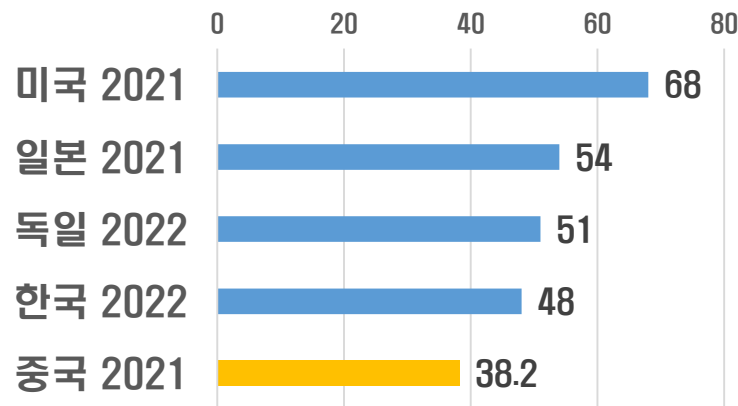
- 장기주택 매입 사이클 종료 → 관련 수요(저축)가 여타 분야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
 - 내구재 수요가 부진(부동산 침체)한 가운데 노후 내구재 교체 촉진 정책(3.7) 제시
 - 이구환신(以舊換新) : 고품질, 저에너지, 저탄소, 안전 등 테마로 교체 수요 촉진

저축율과 투자율



자료: FT, 2024.3.6

내수소비/GDP 비중



자료: CEIC

3. 중국의 제조업 [제조업 → 수출 → 물류]



◆ (수요측) 단기 내구재 소비 진작, 장기 소비확대

- 소비를 장기적/안정적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위한 정책을 시행 중
- 장기 소비 육성 전략 발표(22.12월), 내수확대를 전략 계획 강요(2022 ~ 2035년)
[China's Property Downturn has a Silver Lining for Consumption, Bloomberg, 2024.3.7](#)

교체수요 전망 및 정책

배기기준 미달 차량 : 1,600만대

(이중 차령 15년 이상 : 700만대)

연한 도달 가전제품 : 연 2.7억 대

강제도태(자동차), 표준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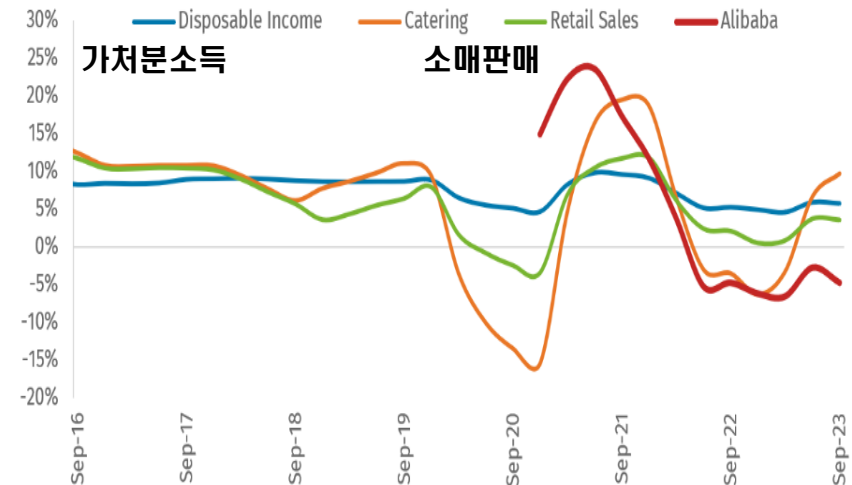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금(지방정부)

주택 리노베이션 촉진

자동차 구입 대출 비중 상향

소득과 소비

Disposable income, retail sales, and catering, Sept 2016 – Sept 2023
12-month rolling sum, percent year-on-year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Mooring Market Intelligence.

자료: Rhodium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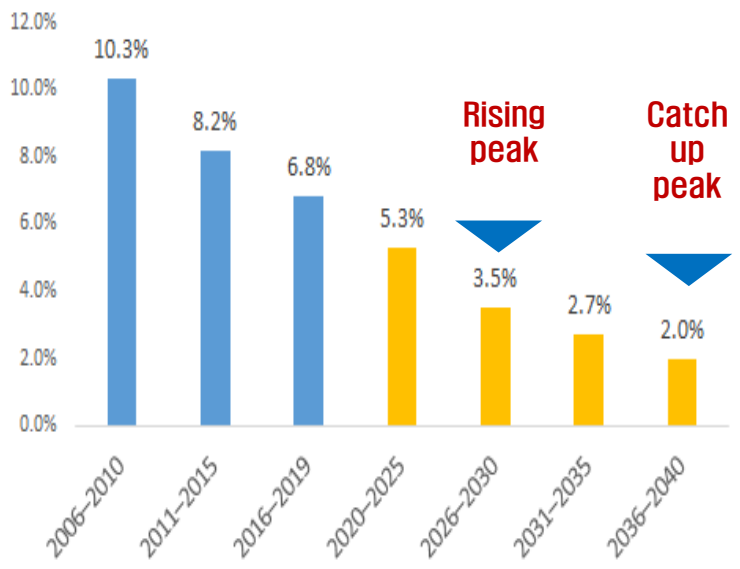
4. 전망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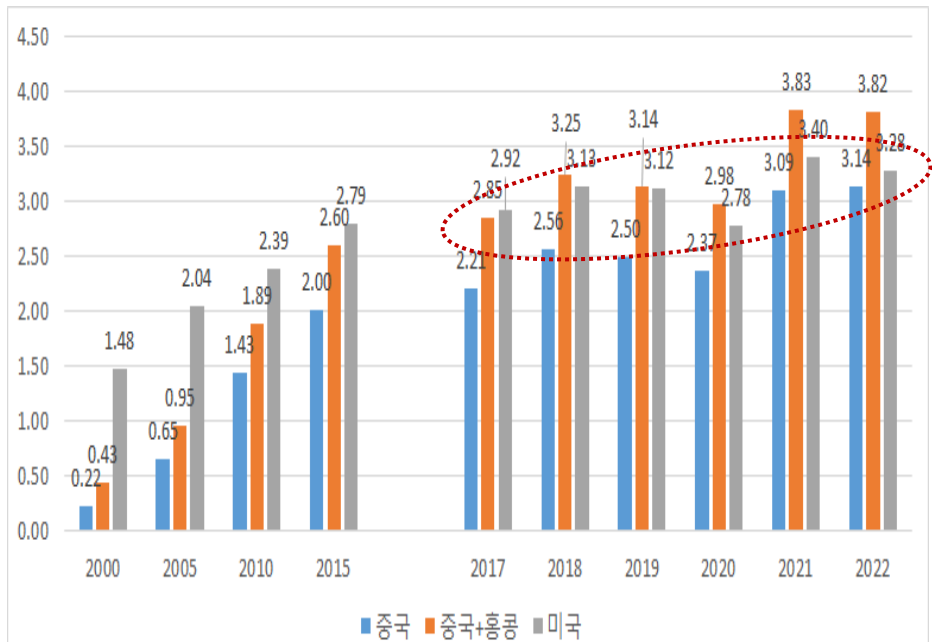
◆ [시각] 중국의 성장둔화가 중국의 위기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음.

- 10년 후 미국과 대등한 규모와 성장속도를 가진 시장이 된다는 의미
- Peak China의 귀결은 중국의 위기나 쇠퇴가 아니라 G2 시대의 진정한 개막
- 이후 미국과 중국은 GDP가 아니라 혁신, 기여, 가치를 놓고 경쟁함.
- * 미국이 세계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peak는 1948년임.

잠재성장률 변화



경제적 의미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전망과 대응

◆ [접근] 중저속 성장시대의 기회 변화 : 병목 활용에서 접촉 유지로

- 중저속 성장기조 → 고도성장의 병목에서 발생하는 중국특수 활용은 어려워짐.
 - 신산업-신시장 : 5G/태양광/드론/전기차/배터리/로봇 등 사례
 - 새로운 병목 : 소비 캐치업(소비재), 제조업 설비투자(자본재), 고령화 대응(서비스)..
 - 중국 산업과 전방위적 접촉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관련 기회 상실
 신규투자 법인수 2,296개사 (2006년) → 203 개사 (2023년)

중국의 고도성장과 성장의 병목

시기	병목	효과
1990년대	급속한 개혁개방, 수출산업화 → 수출주체/해외시장 네트워크 병목	한국기업들이 중국 연해 지역 수출가공 산업 진출
2000년대	WTO 가입 및 수출산업 급성장 →수출용 중간재 공급 병목	한국 중간재 대중수출 급증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대적 경 기부양과 인프라 건설 → 자본재 공급 병목 발생	자본재 대중수출 일시적 급증 (2010년 대중수출의 24.5%)
2015년~	중국인의 소득-소비 급증 → 고급 소비재 및 서비스 병목	한류 및 중국 관광객 급증



4. 전망과 대응

◆ [경쟁력] 수출시장에서의 부진 : 한국 제조업 경쟁력 (상대적) 약화

- 2013년 이후 대중 수출은 횡보하였으나,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10년간 감소추세
- 지난 5년간 한국의 여론은 반도체, 배터리에만 관심, 최근 정책관심도 여기에 집중.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10.4(2015년)→ 8.4(2020년) → 6.3(2023)

대중 수출과 반도체
(억 달러)

	대중수출 전체	증가율	대중 반도체	반도체 제외	증가율
2013	1459	8.6	217	1242	
2014	1453	-0.4	262	1191	-4.1
2015	1371	-5.6	278	1093	-8.3
2016	1244	-9.3	242	1002	-8.3
2017	1421	14.2	393	1028	2.6
2018	1621	14.1	522	1099	6.9
2019	1362	-16	373	989	-10.0
2020	1326	-2.7	399	927	-6.3
2021	1629	22.9	502	1127	21.6
2022	1558	-4.4	521	1037	-8.0
2023	1,248	-19.9	361	887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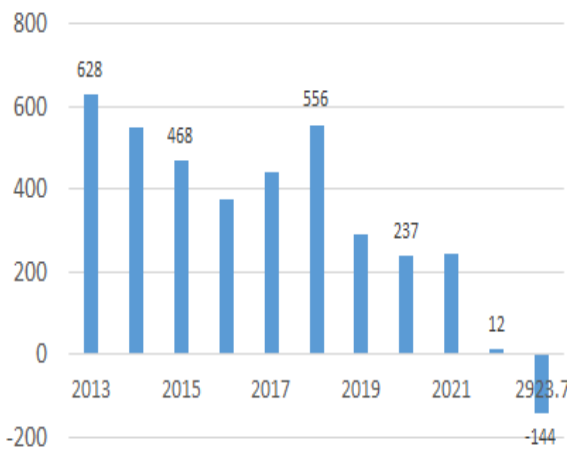


4. 전망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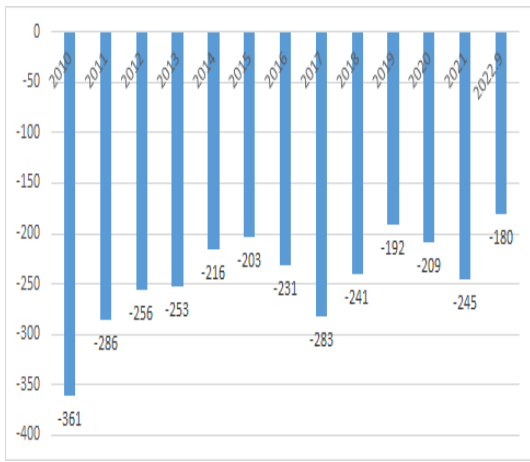
◆ [경쟁력] 중국 산업고도화로 한국산 수입대체는 필연 ? Yes and No

- 후발국이 선발국을 추격, 수입대체 및 수출고도화 → 무역수지 흑자 소멸 ?
-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이미 현실화,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독일 추격할 때는?
- 중국을 보는 산업 및 기업 전략 → 일본/독일을 보는 산업 및 기업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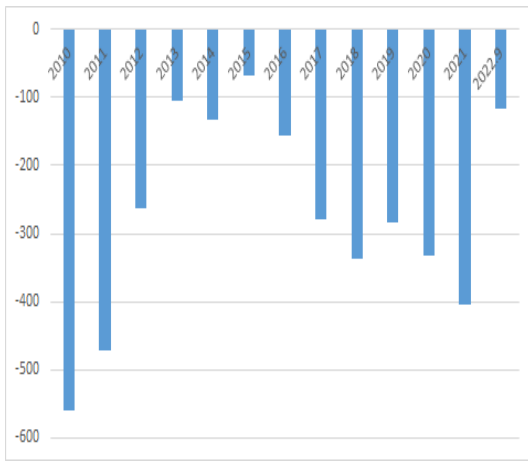
한국의 대중무역수지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중국의 대일무역수지



- * 대일 무역적자 (달러) : 113억 (2000년), 244억(2005년), 361억(2010년), 203억(2015년), 241억(2022년)
- * 대독일 무역적자 (달러) : +6억 (2000년), +5억(2005년), 36억(2010년), 148억(2015년), 135억(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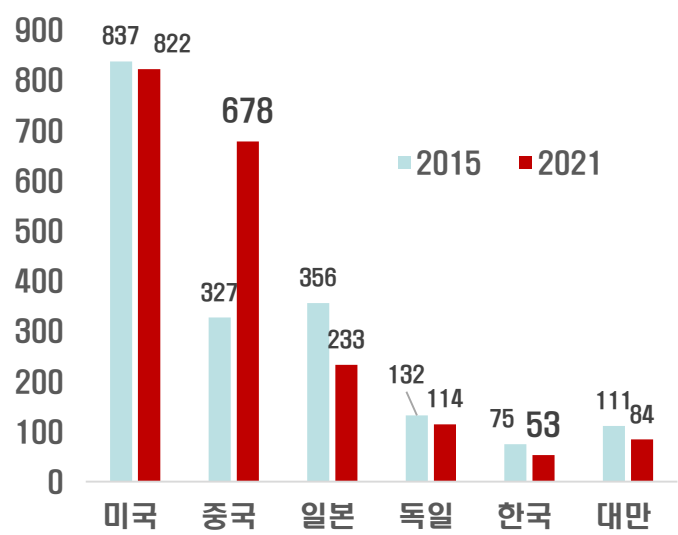
4. 전망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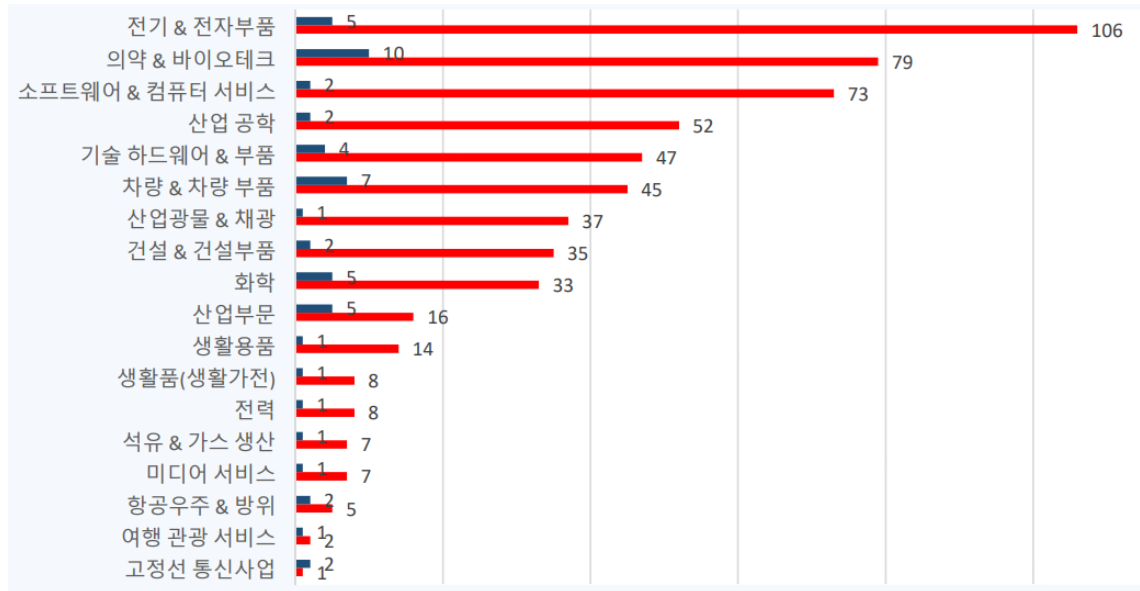
◆ [기업] 逆 초격차, 중국과의 파트너 쉽, 을(乙) DNA가 필요

- 중국은 이미 한국을 앞서 있으며, 양국 기업의 협력을 한국이 주도하기는 어려워 짐.
 - 독자기업/경영권/생산기지 인식 → 다양한 형태의 합자, 제휴, 학습 전략이 필요
 - 고기술+고부가가치 업종 = 주문형 + 乙型 업종 (HBM, 시스템 반도체, 정밀화학...)

R&D 2500대 기업
(2021년 기준)



업종별 한중 R&D 2500대 기업



4. 전망과 대응



◆ (미래) Transition : 탄소중립의 지정학, 새로운 게임 체인저

- 중국의 입장 전환 (차별화된 책임 → 시진핑의 탄소중립 선언, 2020.9)
-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중국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큼.
-2021년 중국의 석탄부족 및 전력난, EU-미국의 '더러운 철강' 비난, 탄소국경조절 메커니즘

- **중기적으로** EU-미국 동맹을 EU-중국 동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후보

국가	입장	의미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정치적 지지가 뒷받침 - 국제적 규범 강화시 경제적 이익 (기술 선점) 	- 정치와 경제 양 분야 상향식 동력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당의 하향식 결단 - 국제적 규범 강화 효과는 양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산업 탄소절감은 부담 (-) 2) 글로벌 수요 형성시 경쟁력 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하향식 정치적 동력 -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 기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이슈가 국내 정치화 (민주/공화) - EU에 비해 규범화의 경제적 이익 약함. 	- 항시적인 이탈 가능성 (트럼프)

- **장기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을 회피하면서 패권 도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
 - 패러다임 shift : 범선-증기-내연-전기-IT... 탄소절감 ?
 - 기후변화 대응을 일종의 전인류적 전쟁이라고 볼 때, 동 전쟁의 승자가 패권국이 될 수 있음.
(사례 : 영국-미국의 패권 교체(1870~1945년)와 1,2차 세계대전, 不戰而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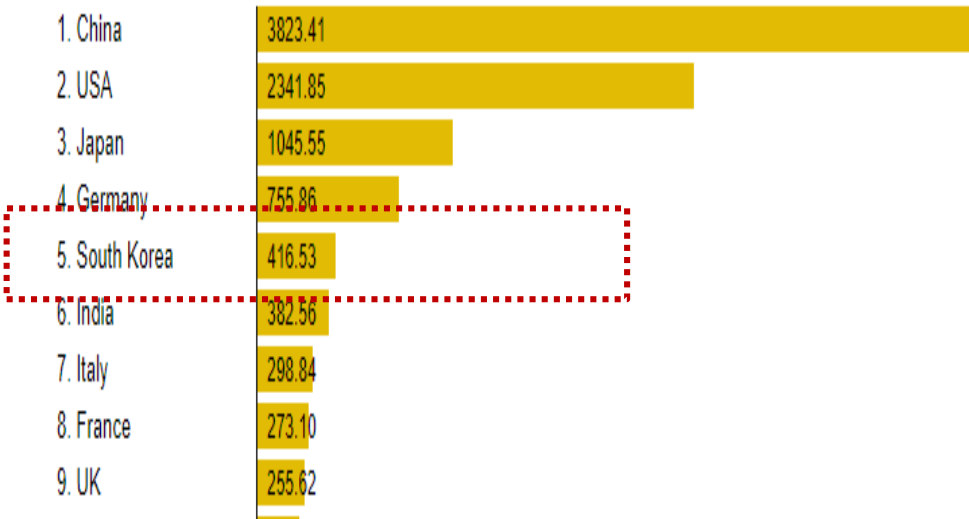


4. 전망과 대응

◆ [지정학] 우리의 위상과 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

- 새우 인식 : 선택 전략, 사자성어전략, 처신 전략(positioning).... 중견국 전략
- 열강 지위 : 한국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5위권, 반도체/배터리/조선/IT/ 방위 산업 선도국
- 1913년 일본의 GDP는 세계 9위

제조업 부가가치 순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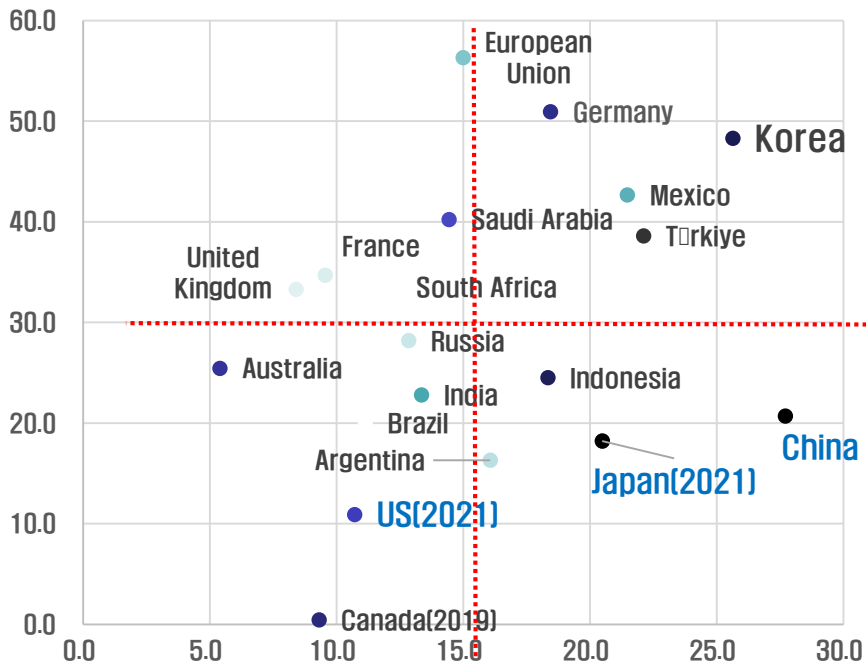
4. 전망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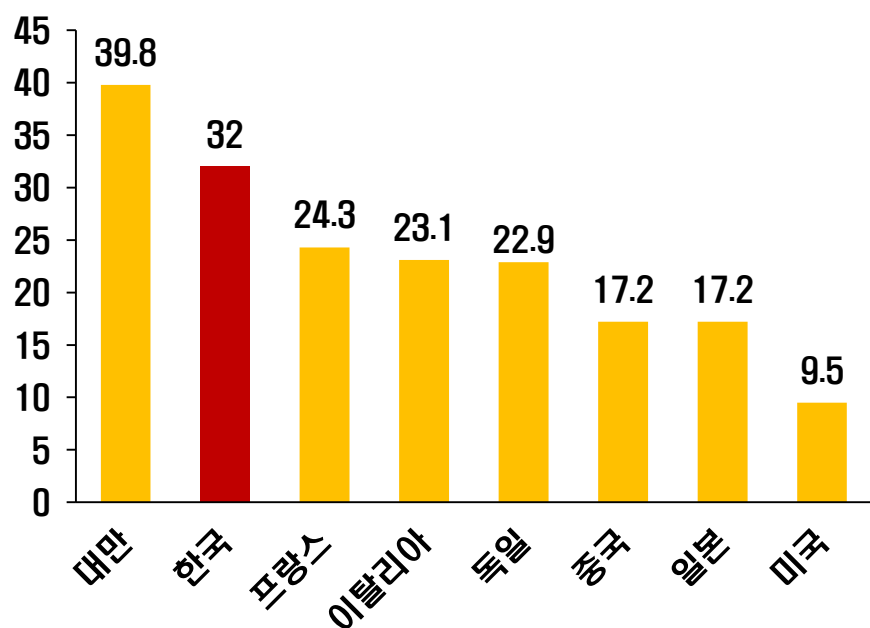
◆ [지정학] 국익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국익이 뭐냐? → 경제적 정체성

- 한국은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장한 제조업 수출국
 - 제조업 통상대국으로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옹호하고,
 - 동아시아 국가로서 동북아 분업구조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
 - 중국 견제 과정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 입장

G20 제조업 및 수출 비중



GVC 내 후방참여도



자료: OECD TIVA, 현대경제연구원 2023 재인용
주: 후방참여도: 각국 수출에 중간투입된 해외 부가가치 비중

4. 전망과 대응

◆ [지정학]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1위 기업은 모두 국유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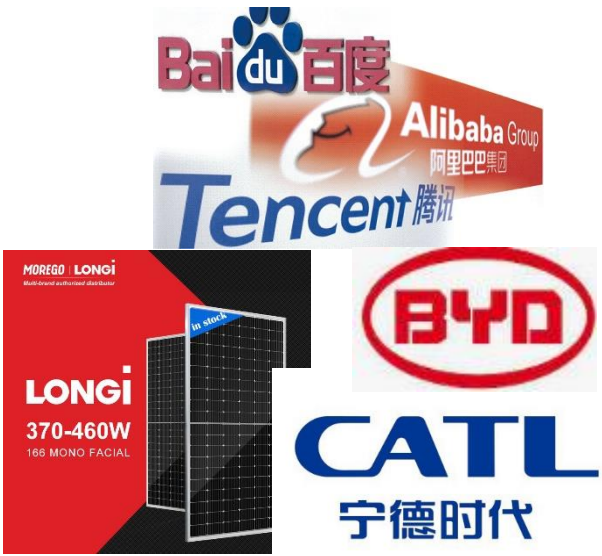
- 비시장적 경제체제가 야기하는 경쟁왜곡과 불공정성이 한국의 주력 산업을 위협
→ 이를 견제할 글로벌 규범구축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이 중국견제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라기보다 선진산업국의 일원으로서임

한국 수출상위 업종의 중국 국유기업

순위	업종	업종 1위 기업
1	반도체	SMIC
2	석유제품	중국석유천연가스
3	석유화학	중국석유화공
4	자동차 (부품)	상하이자동차
6	일반기계	Weichai지주
7	철 강	바오우[寶武]강철
8	디스플레이	BOE과기그룹
9	조선	대련선박중공그룹

} SOEs

신산업은 다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8월 기준, 각사 홈페이지 등

[참고] 중국 해외항만

◆ 해외항만 건설 : 단순 건설수주 Vs. 해운 거점 구축

129

Port projects total (port projects outside China with Chinese investment)

17

Port projects with majority Chinese ownership

14

Port projects with majority Chinese ownership where there is physical potential for naval use

Country or territory	Total Chinese investment in ports ▼	Port projects
Tanzania	\$10.4B	4
Australia	\$8.1B	3
Guinea	\$7.2B	3
Sri Lanka	\$3.9B	4
Singapore	\$2.6B	1
Angola	\$2.1B	5
Ivory Coast	\$1.7B	2
Nigeria	\$1.7B	2
Cambodia	\$1.5B	3
Algeria	\$1.4B	4
Cameroon	\$1.4B	2
Myanmar	\$1.3B	1
Saudi Arabia	\$1.2B	3
South Korea	\$1.2B	1
Thailand	\$1B	2
Madagascar	\$1B	1
Israel	\$1B	1
Russia	\$1B	1
Kenya	\$944.7M	3
Timor-Leste	\$942.6M	1

Tracking China's Control of Overseas 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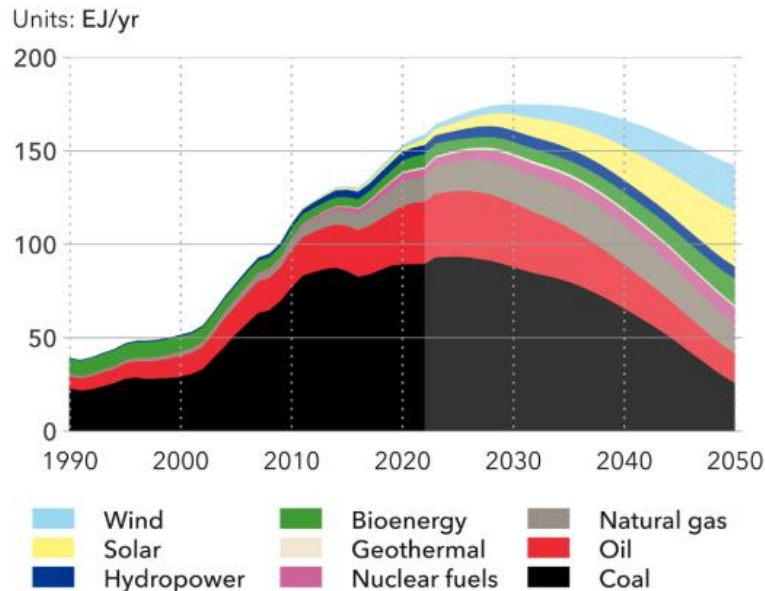
<https://www.cfr.org/tracker/china-overseas-ports>

[참고] 중국 석탄 소비

◆ 장기적 탈탄소 전환 속도와 연결

- 시나리오(예시) : **미국** 기후변화 대응 이탈 → **전세계** 탈탄소 전환 속도 둔화 → 중국 관련 산업 **수요 부족** → 신에너지 지원을 위해 국내 시장 창출(전환 가속) → **석탄 소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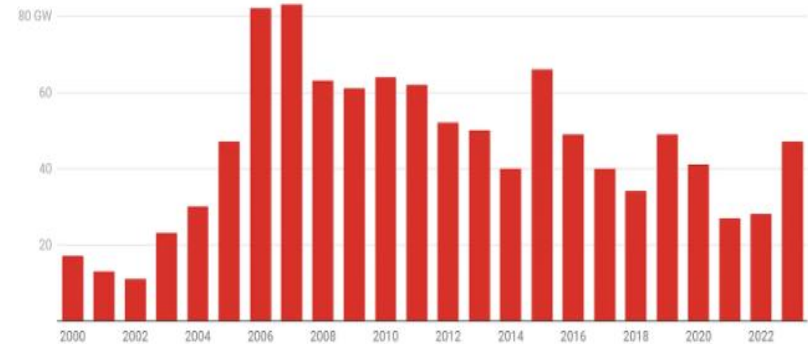
Primary energy supply by source



Historical data source: IEA (2023)

Newly operating coal plants in China

Coal capacity is measured in gigawatts (GW).



Source: Global Coal Plant Tracker, Global Energy Monitor, January 2024 release. • Created with Datawrapper